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대림 제1주일

가톨릭마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 2021년 교구장 사목교서 4~5면

깨어있건 잠들었건 ‘고엘’을 꿈꾸며 기다리는 대림 시기

오늘 이사야서 말씀 첫 소절에서 대림 시기의 핵심 키워드가 주어진다. 오시길 기다리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63,16)이다. ‘구원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동사 ‘가알’에서 파생된다. ‘가알’은 ‘속량하다(redeem)’는 의미이다. 여기서 구원(Redemptio)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고엘’은 별 가치도 없는 것을, 아니 부정적이기만 한 것을 굳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내 것으로 삼는 자이다.

구약 전통 내 설화적 인물 중 제일 대표적 ‘고엘’은 보아즈이다. 보아즈는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룯을 아내로 삼은 자이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 킬론이 룯과의 사이에서 자식도 없이 재산도 남기지 않은 채 모압 땅에서 죽은 지 십 년이 넘게 지났다(룯 1,1-5). 이렇게 ‘돈 안 되는’ 과부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돈 풀아 박는’ 지름길이다. 그 사이에 자식이라도 나면, 선대의 땅도 속량해주어야 하고, 태어난 아이조차도 고인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 고인이 남긴 빛과 미망인 및 ‘빠꾸기 새끼’가 될 아이 부양의 의무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는 셈이다. 이러한 보아즈로부터 다윗이 온다. 다윗 가문이 속한 ‘페레츠의 족보’가 룯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4,18-22).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님의 족보에서 보아즈를 필두로 다른 ‘고엘’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자렛 예수께서 진정한 ‘고엘’이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엘’은 ‘고엘’ 가문에서 온다. 주님의 양부 요셉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이기만 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결과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요셉의 아버지 역시 ‘고엘’일 가능성이 높다. 마태오 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만(1,16), 루카 복음에서는 요셉이 엘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3,23). 야곱과 엘리는 형제이고 이 둘 중 하나는 자식 없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은 형제가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보고, 태어난 아들은 야곱과 엘리 둘 다를 상대로 아들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분은 ‘그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지는 분’(1코린 1,5)이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장 내밀한 부분은 악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고 오로지 당신 자신의 것만으로 삼을 수 있는 곳으로 두셨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상대로 ‘고엘’이 되실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밀한 부분이 마지막까지 나 자신 홀로 고립되는 곳이 될 수 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고 거듭 당부하시는(마르 13,33-37)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잠’은 여러 가지 이유로(실망이나 좌절 또는 두려움 등) 도피처가 되고 ‘무기력’이 드러나는 장이다. 무기력으로 번역되는 lethargy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인 망각의 강인 ‘레테(lēthē)’에서 온다.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망각하게 될 때, ‘잠들게 된다.’ 거듭 잠들게 되더라도 다시금 깨어나야 한다. 아니, 자더라도 룯처럼 자야 한다(룯 3,6-7). 우리의 잠이 ‘고엘’을 꿈꾸고 맞이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게 그렇게 ‘자야 한다.’ 깨어있건 잠들었건 ‘고엘’을 꿈꾸며 기다리는 대림 시기 맞이하도록 하자.



이진수 스테파노 신부 | 삼계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63,16ㄹ-17,19ㄹㄹ; 64,2ㄴ-7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3-9
 복 음 마르 13,33-37

주일 진레

명례에 내린 빛을 따라가다

1828~2020 명례성지역사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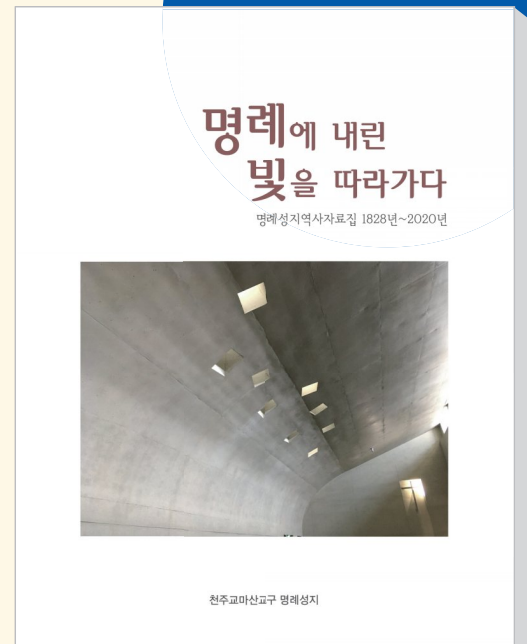
오래 준비해 온 명례성지의 역사자료집이 발간되었다. 1828년 복자 신석복 마르코의 출생으로부터 이어진 명례성지의 역사를 『명례에 내린 빛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에 담았다.

“이 책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세 분입니다. 신석복 마르코 순교복자님,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님,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님. 빛이 이분들을 명례로 인도하였고, 이분들 삶에서 증거가 되는 빛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명례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권영조 마르코 신부님,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도 이 이야기 속의 주요 인물이 됩니다.”

—최문성 마르코 신부(명례성지 담당) ‘발간사’ 중—

“누군가는 이 언덕을 오르며 오래 전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떠밀려 왔던 피난 교우들의 간절한 심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등을 내어주는 언덕은 세상살이의 소음과 욕망을 피해 찾아든 그들을 말없이 안아줄 것입니다. 명례의 고요와 평화 속에서 침묵 중에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녹이고,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조금 같은 헌신적인 삶으로 이어져 세상 곳곳을 밝혀 나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격려사’ 중—



·발행일: 2020년 10월 24일

·문의: 명례성지 사무실 055·391·1205

추계 사제 총회



추계 사제 총회가 11월 17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각 국은 2021년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사무처는 2021년도부터 시행할 새로운 공문 지침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총회를 마무리하며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마음으로 사목하는 해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코로나 시기 하느님 대면하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들 하시냐고 인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 감염사태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치료 방안과 백신(vaccine) 개발에 인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디고 명료한 답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구 내 모든 본당들도 방역수칙에 따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늘 활발했던 교회생활이 마치 지난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사태는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요동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혼란이 지금 우리의 혼란이 되어 먼지 덮인 성경책을 뚫고 나와 우리 가슴 한복판에 명징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덕분에 격리와 비대면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내면성(內面性)을 되찾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내적인간(內的人間 homo interior)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하느님 앞에 서 있게 합니다. 코로나가 꼭꼭 감추고 숨겨두었던 우리의 속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여 있는 부끄러운 마음의 빨래들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아주 싫고 매우 몹쓸 것이 다가오면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고 대결하는 가운데 자기도 몰래 그 몹쓸 것, 그 싫은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화 벤허(Ben-Hur)의 주인공 유다가 억울한 고초를 당하고 친구이자 원수인 멧살라를 응징하려 했을 때 약혼자 에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토록 선하던 당신 얼굴에서 멧살라의 모습이 보여 두렵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이렇게 간다는 식의 일대일대응은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코로나와 맞서 싸우느라 되받고 치는 방법만을 강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코로나 같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되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서 하느님과 진정한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늑막에 얻은 아들 이사악을 바쳐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랬듯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외나무다리에서 대결을 벌였듯이, 예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그랬듯이 인간은 하느님과 정면승부를 겨루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느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무한하신 분과 겨루면서 비로소 유한함을 넘어서게 되고, 거룩한 분을 대면하면서 속된 모습을 벗어나게 되고, 자비로우신 분께 간구하면서 죄스런 현실을 탈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과 함께 시작되는 2021년 새해는 첫 사제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두 번째 사제 토마스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천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중에서도 동네에서도 내몰리고, 옥고와 고문과 죽음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첫 두 분 신부님의 시리고 시렸던 짧은 생애를 되새겨 봅니다. 두 분 모두 열다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제가 되기 위해 마카오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먼저 사제가 되신 김대건 신부님은 13개월이라는 짧은 사제 생활 동안 박해 중에 있는 신자들을 다독이고 전교하며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올 길을 개척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옥고를 겪으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피의 꽃이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보다 4년 정도 뒤에 사제품을 받으시고 1849년 12월에 압록강을 넘어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국에 오자마자 신부님은 잠시도 쉬지 못한 채 교우촌을 방문하며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년에 7,000리 길을 걸으며 교우촌을 방문하여 성사를 집전하시고, 우리말 교리서와 기도서를 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목하시던 신부님께서는 사목생활 11년 5개월 마흔 살에 과로와 장티푸스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처럼 열정적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살게 했던 것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세상,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까지 바치는 초개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 신부님을 비롯한 초기 우리 신앙 선조들은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자신들을 내모는 이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더 깊이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내면에 자리 잡은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갈구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적고 또 적으며 하느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렇게 내면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주일 복음에 따른 묵상과 기도문을 제시한 「성경광익(聖經廣益)」과 전례력에 따라 축일과 성인공경에 관한 말씀과 묵상자료가 담긴 「성년광익(聖年廣益)」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두 책을 바탕으로 초대 신자들은 피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시련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 분 신부님과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아 김대건·토마스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을 지내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뒤를 잇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사제들의 내면에 두 신부님의 처절하고도 열정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우리 사제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2코린 4,16)

2021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일 립

건진성사

일시: 12월 2일(수)

장소: 용잠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일시: 12월 2일(수)

장소: 여좌동성당

집전: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일시: 12월 6일(주일)

장소: 문산성당

집전: 박정일(미카엘) 주교

교구/본당

신학생 5학년 겨울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1월 30일(월)

신학생 1학년 겨울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2월 5일(토)

신학생 동계연수

일시: 12월 7일(월)~9일(수)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교구 신학생(부제, 휴학생 포함)

참가비: 1인 10만 원

접수: 11. 30.(월)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23-05404 (재)마산교구/
입금자명- 본당명+신학생(예:양덕신학생)

예비신학생, 여학생 예비성소자 겨울 연수

일시: 12월 19일(토) 10:00~19:30

장소: 예비신학생-마산(양덕동성당), 창원(사파

동성당), 거제(고현성당), 진주(신안동성당)

여학생 예비성소자-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중1~고2 예비신학생,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등록자

집결: 본당별 및 개별적으로 해당 모임 장소
로 모임

준비물: 주일미사 준비/ 참가비: 1인 1만 원

접수: 11월 29일(주일)까지 ※마감일 엄수

계좌: KEB하나 160-890023-07704 (재)마산
교구(※본당명 꼭 표시, 예:양덕예신)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청년 피정

일시: 12월 12일(토) 14:00~13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
릭대학교 교수)

대상: 청년, 선착순 50명 마감(전원 1인실)

참가비: 1인 6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
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시계

신청: 12월 6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월 23일(수) 16:30~25일(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4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예수회 송봉모 신부 성경대학 동영상 강의

내용: 한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3월 개강)

문의: 02·3276·7733

홈페이지-http://center.jesuits.kr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12월 5일(토) 14:00	도심 속 침묵의 공간 (창원)마음의 집	010·2000·4131	침묵가운데 하느님만이 전부이고 싶은 미혼여성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월 6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대상: (만)19세~35세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전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향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中

1588-5335

✦ 하마리아 Maria Heissenberger 여사 선종



하마리아(Maria Heissenberger, 1930~2020) 여사께서 2020년 11월 23일 오전 6시 오스트리아 구세주의 어머니(Mater Salvatoris) 요양원에서 향년 90세로 선종하셨습니다.

하마리아 여사는 오스트리아인으로 1959년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SOS어린이마을을 대구에 설립하였다. 김수환 마산교구 초대 주교님의 요청으로 마산교구 사도직 협조자가 되었고, 1968년 가포 국립 결핵요양소를 시작으로, 진영성모의원에서 일하였고, 1976년 가톨릭 여성회관을 설립하고 초대와 4대 관장을 역임하였다. 건강상 이유로 1992년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용원본당 성전 건립기금 마련 주방세제 판매

용원본당은 현재 성전 건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주방세제 판매를 통해 작으나마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격: 1개당 1만 원(한 박스 10개)

내용: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시면 각 본당이나 가정으로 택배 발송
(4개 이하는 유료배송, 5개 이상은 무료배송)

문의: 본당 사무실 055·551·8416



※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른 비품 봉헌도 받고 있으며, 모듬어묵(대원어묵, 1만 5천 원)도 판매합니다.

▶ 후원계좌: 농협 351-1106-5639-63 (재)마산교구

이 가을, 무엇을 할 것인가-김현승 <가을의 기도>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늦가을이다. 집 앞 늙은 느티나무의 잎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에 수북이 쌓인다. 퇴장의 의미를 곱씹게 되는 이 시간, 문득 생각나는 시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이다. 시인이 195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시이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가을의 기도>-

낙엽이 지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이다. 푸른 잎의 빛나던 시절은 떠나가고 그제야 우리는 오롯이 신을 마주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겸허한 말로써 기도를 드리고, 신을 향한 참사랑을 노래한다.

누구나 욕망 속에 살아간다. 그러다가 무성하던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걸 버렸을 때일 것이다. 화려한 공작새가 아니라 가난한 까마귀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스스로 골짜기에 핀 백합이라 하신 절대자가 함께하신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 가장 큰 축복은 /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 마지막이 있다는 것”(서정운, 축복). 김현승 시인의 시에서도 죽음을 읽는 이가 있고, 신앙이나 순결한 사랑을 느끼는 이도 있을 것이다. 가을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